

## 김구선생의 백범일지와 혈의 보존처리

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96년 7월 9일 사단법인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셨던 김구선생의 유품인 백범일지(1권)과 혈의(9건)를 의뢰받아 보존 처리중에 있다.

백범일지는 김구선생이 중국 상해와 중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린 두아들에게 쓰신 것과, 윤봉길 의사 사건과 중일전쟁의 결과로 독립운동이 불리한 상황에 이르자 해외동포를 염두에 두고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선생의 경륜과 소회를 고하려고 쓴 원고지 213매의 글을 한권의 책으로 제작한 육필본이며, 혈의는 1949년 6월 26일 경교장(京橋壯)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서거하실 당시 착용하셨던 피 묻은 속적삼등 의복 일체이다.

○ 백범일지와 혈의의 현 상태는 다음과 같다.

-백범일지는 오래전에 표구수리를 한 바 있으나 제작 일부가 찢어지고 지질의 변퇴색과 미생물의 균체가 발생한 상태이다. 특히 일지 포갑내부에서는 미생물이 번식하고 있는 흔적인 갈색반점을 다량 관찰할 수 있었다.

-혈의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묻어 있는 혈액의 응고로 인해 재질이 경화됨으로서 껍임 등에 의해 재질의 손상과 특히 충균에 의한 손상이 우려된다.

○ 유품의 보존처리

백범일지와 혈의 등은 먼저 보존처리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는 약제에 의한 살충·살균처리를 실시한 다음, 기밀성이 우수한 이축연신비닐필름으로 밀봉하고 내부를 불활성가스인 질소가스로 충전함으로써 유품 재질의 변화와 습기, 충균의 유입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존토록 할 것이다. 특히 백범일지에 있어서는 지질의 손상상태 조사와 파손된 부위의 제작을 재실시킬 계획이다.

금번 백범일지와 혈의의 보존처리는 백범 김구선생의 위대한 애국정신과 독립정신이 깃들어 있는 유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후손들에게 그분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핏물



핏물의 보존을 위한 색도측정